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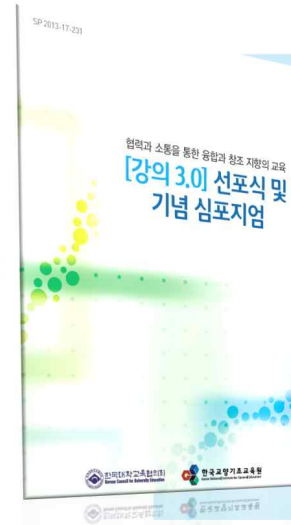
- < 강의 3.0 > 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 대교협 2014 정시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 교육협력위원회 '청소년 진로 설계 특강'
- 대학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
- 시간강사법 개정 관련 현황
-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
-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세미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협력과 소통을 통한 융합과 창조 지향의 교육
<강의 3.0> 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융합과 창조지향의 교육
강의 3.0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15:00~18:00 / 장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2층 대회의실

PART I. <강의3.0> 선포식	
15:00 - 15:30(30분)	-개회식: 이원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축사: 남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기념사: 유홍준(한국교양교육협의회장, 삼군관(학)교수) -기초교육 <강의3.0> 선정사업단 소개 및 인사
15:30 - 15:45(15분)	Coffee Break
PART II. 기초교육 <강의3.0> 심포지엄	
15:45 - 16:15(30분)	-발표: 기초교육 <강의3.0>의 의미와 논 등 원(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5개사업단 사업 내용 소개
16:15 - 17:30(75분)	-발표자 1: 남기택(강원대학교 교수)
	-발표자 2: 김태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표자 3: 김병홍(신라대학교 교수)
	-발표자 4: 최봉준(충남대학교 교수)
	-발표자 5: 이상도(울산대학교 교수)
17:30 - 18:00(30분)	질의응답 및 토론
18:00 -	-폐회식: 손동원(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12월 4일(수) 15시 <강의3.0> 사업 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융합과 창조 지향의 교육'을 모토로 대학 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 <강의3.0> 사업의 제1유형인 <기초교육 강의3.0>은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책임강의자 및 공동강의자들(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여 한 팀을 이뤄 교과목 공동 개발, 강의 내용 공동 연구, 교수-학습법 공유, 공동 강의와 공동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4년도 <강의3.0>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겨울 계절 학기 시행 예정인 기초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강의3.0> 사업을 기획, 공모한 바 있다. 사업 공모

결과 총 5개 팀이 선정되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고 강의 결과물인 강의안 및 강의 동영상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홈페이지(konige.kr)와 KOCW에 공개될 예정이다.

□ 이번 선포식에서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은 “학문 영역별로 단절되고 고립된 연구, 강의 분위기를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대학생들에 교수 개개인이 아닌 팀으로 구성된 우수한 강의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 강의의 질을 제고하며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강의3.0〉 사업이야말로 기존의 단절된 상아탑의 벽을 허물고 최상의 강의 모델을 찾아 대학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융합과 창조 지향의 교육을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임을 역설했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손동현 원장은 “교수자 간에, 전공 학과 간에, 나아가 대학들 간에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융합과 창의의 연구와 교육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포지엄의 2부에서는 <기초교육 강의3.0> 사업 선정단의 책임강의자들이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 사업단의 강의명과 책임강의자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문과 프레젠테이션”(남기택, 강원대 외), “초급 중국어”(이상도, 울산대 외), “읽기와 쓰기”(차봉준, 숭실대 외), “사고와 표현”(김병홍, 신라대 외), “미분적분학2”(김태수, 서울과기대 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12월 5일(목)~8일(일),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대교협 2014 정시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 지방 거점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16개 대학 참가 (2012년 107개교 → 2013년 116개교)
- 대학별 교수, 입학전문가 직접 참여 '수준별 수능 대비 일대일 맞춤형 상담' 실시
- 적성검사 및 상담, 장학상담, 입학사정관제 상담, 고른기회 전형 상담 등 특별상담 실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 116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하는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지역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전국 116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 올해 참가대학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14학년도 정시 대입전형에서 ‘수준별 수능’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상담 요구가 높아지고,

- 대학 스스로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최근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교 현황 >

2010년 88개교 → 2011년 100개교 → 2012년 107개교 → 2013년 116개교

□ 올해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대학들은 2014학년도에 처음으로 수준별 수능이 치러진 만류 이에 대한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학의 교수, 입학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1:1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학생이 갖고 온 수능 성적, 학생부 교과성적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학과) 상담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대학별 '2014학년도 정시 전형 관련 주요 사항'을 대교협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http://univ.kcue.or.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참가대학별 상담관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상담, 장학금 상담, 입학사정관제 상담, 고른기회 전형 상담 등 다양한 '상담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대학별 상담관	참가 대학별 1:1 맞춤형 상담
적성검사 상담관	온라인 적성검사 및 상담
입학정보 종합자료관	대입정보 관련 종합검색시스템 운영
진로진학 상담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소속 상담교사 1:1 상담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상담관	입학사정관 전형 상담,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 상담
대입정보공시 및 고른기회전형 상담관	대학알리미 활용법 상담, 재외국민, 탈북주민 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른기회 전형 상담
장학금 상담관	육군본부 군 장학 상담

□ 대교협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 대비 33.7%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지만, 올해 수능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16개 대학이 참여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전형 준비를 위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올해 박람회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지난 수년간 박람회에 불참했던 서울지역 대학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수능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상담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대입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도 배경이 됐다.

□ 박승한 연세대 입학처장은 "정시모집 관련 자료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교협의 권유도 박람회 참여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 고려대도 중전의 입장을 바꿔 안암캠퍼스까지 경시박람회에 참석하기로 27일 최종 확정했다. 고려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번 수능은 특히 학생들의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세종캠퍼스와 같은 부스에서 학생들을 맞아 상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미현 이화여대 홍보부처장은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 수능이 처음 실시돼 전년도 입시결과를 통한 예측이 어려워졌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보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반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고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박람회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신문 2013.11.27 기사 인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교육협력위원회 '청소년 진로설계 특강'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설계 지원방안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로설계 특강은 충남 금산중학교와 전북 오송중학교에서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1월 25일, 11월 29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이번 특강에서는 중앙대 강태중 교수와 MYSC의 김경태 이사가 참여하여 '2017년 대입전형의 변화'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내용으로 충남과 전북지역의 중학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향후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대학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월 17일(일)~21일(목) 정부해외인턴사업 국외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대교협은 대학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현장점검은 신성장동력분야로 독일지역에 파견된 인턴학생의 근무여건과 생활환경 점검, 인턴기관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이번 현장 점검시 방문기관은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 독일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유럽 연구소이다. 양 기관 모두 신성장동력분야의 인턴기관이며 2명의 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교협은 각 기관 인턴학생의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양질의 인턴파견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인턴파견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윤관석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발의(11.20)

시간강사법 개정 관련 현황

1. 추진경과

-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법을 개정안(이하 시간강사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11.12)하였으나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12.11)
 - 국회에 강사제도 관련 입장 전달('13.3.29)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배려, 임용기간 1년 이상 및 소청권 부여 등에 대한 재검토 등
 - 시간강사법 재논의 건의문 발표('13.6.27, 하계총장세미나)
 - 국회에 시간강사법 재논의 의견 전달('13.7.11, '13.8.7)
 -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간강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전달('13.7.31, '13.8.28)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시간강사법 개정 의견 교환('13.9.3)
- 시간강사 제도 설문조사 수행('13.6).
 - 설문조사 결과, 개선요구사항 1순위는 강사로 인상(46.6%'. 다음으로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과 강의기회 확대(13.8%)를 요구한 반면 소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강사는 0.07%에 불과함
 - ※ 대교협이 202개 대학의 전체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사 10,015명(4년제 대학 시간강사의 약 26%)가 응답
-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9.11)
 - 임용 및 책임용 절차 관련 내용, 교원확보율 산정시 강사 제외, 자격기준 등 내용 포함

2. 국회 및 강사단체의 입장

- 국회
 - 새누리당 :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대체법안 마련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임

- **민주당** :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시간강사 단체간의 이견과 제시안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체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입장임
 - ※ 국정감사 전후로 법안 유예에 대한 의견이 양당에서 제기되고 있음
- **강사단체**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법정 교원확보를 100% 충원 의무화, 임용기간 2년이상 임용과 평가후 재계약,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3인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 국가예산 지원 등 주장
 - **전국대학강사노조** : 법정 교원확보를 100% 충원 의무화, 연금법 적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차별 해소 등 강사의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 촉구

3.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는 국회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대체법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3.9.11.)**
-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임용 절차 관련** :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 **재임용 절차 관련** :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
 - **교원확보를 산정시 강사 제외** :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을 사유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음
 - **자격기준** :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

4. 강사법 개정 또는 시행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대학의 정관, 학칙에 강사관련 근거 신설 및 관련 규정 마련
- 정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에 강사 자격, 임용 및 재임용 절차, 임용계약서 마련 등 추진

5. 향후 전망 및 대처 방향

- **우선 시행을 유예한 후, 고등교육법 재개정 필요**
- **여야 모두 2년간 유예 후 합리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조성됨**
 - 새누리당에서는 박성호의원이 유예 안을 발의 준비중이었음
 - ※ 박성호의원 방문하여 법안 유예와 관련한 추진 협의(13.11.13.)
 - **민주당에서도 2년 유예 안을 발의키로 의원 워크숍(11.13)에서 방향 논의, 윤관석의원 등 13인이 고등교육법 재개정안을 먼저 발의함(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발의자 및 발의일자
 윤관석의원 등 13인(2013.11.20)
 [김상의 김춘진 김태년 박예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

입법내용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소위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도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음.
 더욱이 2014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함.
 이 때문에 처우개선의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의 행정당국도 영·재정상 준비도 미흡함.
 따라서,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상당 기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안 부칙제1조).

- **여야 모두 2년 유예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중 개정안 통과 전망**
 - ※ 차질없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금년중 통과되어 2년 유예될 수 있도록 양당, 특히 박성호, 윤관석 의원에게 관심과 지원 필요
 - ※ **대교협 11월 26일(화) 관련 의원실 방문, 협조 당부 (새누리당 김희경·박성호 의원, 민주당 윤관석·유은혜 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

1. 기성회비 개요

- 근거
 - 최초 근거 :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
 - 현재 근거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 관리규정
 - ※ 사립대는 2000년 폐지
 - ※ 감사원('02, '04, '08년), 국민권익위원회('08, '11년) 등 개선 권고

2. 기성회비 반환소송 현황

- 2010년 1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제기
 -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 2013년 11월 서울고법 민사11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국가와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은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인당 79만2500~396만7000원 반환)
-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인단 '스누캐쉬백'은 9월 10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1차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 조건, 소송 금액 등을 소개

3. 정부·여당의 대책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 기성회비 징수 근거에 대한 법적 논란 해소 등 기성회회계 제도의 근본적 해결 모색
 - 국고 일반회계와 비국고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 회계별 칸막이를 없애고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토록 하여 효율성, 투명성 제고
 - ※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새누리당 민병주위원이 교육부와 안을 조율하여 대표 발의(2012.7),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

4. 현재 상황

- 교육부는 항소심 패소후, 대법원 상고 준비중이며 향후 별도 TF 구성 예정 등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위해 총력 대처
- 민주당은 11.13(수) 의원 워크숍을 통해 별도의 법(국립대학지원법 등)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예정)
 - 기성회계 폐지와 연계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대학의 책임, 국가의 관리강화 등 방향으로 입안 예상
- 경북대 등 학생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반대 움직임
 - 기성회계 폐지와 그 만큼의 등록금 인하 요구

5. 향후 전망 및 대처방향

- 여야의 정치적 대립 및 대학정책에 대한 시각 상충 등으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
-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하나, 민주당 발의 예정안에 대한 검토 등 각각도로 대처해나가야 함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세미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입학사정관 제 우수 연구보고서 공유를 통한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교육 영향평가', '입학사정관제 중단연구',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연구', '고교-대학 연계 및 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제로 모두 14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주제별 발표와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조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을 11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였다.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서남수 장관은 축사를 통해,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들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맺어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부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소개하였다.
- 또한, 우리 고등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의 초청강연에서

- 박철우 교수(한국산업기술대)가 창조경제 관점에서 지역산업 육성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산업과 지원체계의 효율적 연계, 지역인재가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HRD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최규옥 대표(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임플란트를 제공하는 부산소재 의료기기 업체로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는 편견과 의료기기 개발 사업의 특수성으로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인근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회사가 성장*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매출액 기준 아시아태평양 1위, 세계 6위 기업 : 29억원('06) → 920억원('12)

□ 패널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대학과 기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가족회사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들과

현장실습 지원 12,204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참여 21,691건, 취업교육 지원 26,685건, 캡스톤디자인 지원 7,619건 등 협력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산학공동연구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실제 지역에서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성공 기업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포럼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들에게 창조경제 구현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신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주간대학교육' 발간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의 대교협 동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교협 대외협력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919-3825)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